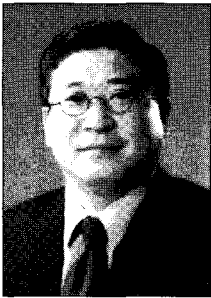




# 미래를 향한 인쇄문화 발전에 주력

깨끗한 인쇄, 깨끗한 회사 만들고자



◀ (주)태신인쇄 대표이사 서명현

국내 인쇄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태신인쇄(주)는 최근 (주)태신인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위치한 (주)태신인팩은 1968년 태성공업사로 설립돼 3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한 자리매김은 물론 국내 인쇄업계 위상 제고에 힘쓰고 있다.

1975년 (주)태신인쇄공업으로 상호변경, 경기도 의왕시로 사업터전을 옮겨 국내 인쇄업계 최초로 TOTAL 생산관리 시스템(IBM SYSTEM / 36 SYSTEM 도입)을 구축했으며 또한 일본 이치마사가 제작한 자동금박, 도무송, 타발기와 실크자동인쇄기를 도입한 바 있다. 1998년 태평양 계열의 (주)홍덕이 화제로 인해 모든 설비가 소

실되면서 현재 소재지인 청원 공장으로 이전, (주)홍덕을 흡수합병하게 됐다.

서명현 사장은 “1998년 태신인쇄는 시화공단에 5730평의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던 중 홍덕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마침 태신인쇄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던 터라 공장을 매각한 뒤 홍덕과 흡수합병을 이루어 현재의 청원으로 사업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라며 “합병 초기에는 두 체제를 통합시켜 하나의 관리체제로 갖추고, 내실의 안정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태신인팩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 거래선과 설비를 재정립하고 이를 계기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 기업 최고의 자산은 “사람”

(주)태신인팩은 깨끗한 환경, 최고의 품질, 최대의 고객만족을 기업 목표로 두고 있다.

아직도 인쇄 공장이라 하면 열악한 작업 환경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태신인팩의 공장은 어느 인쇄공장과는 달리 식품 공장을 방불케 할 만큼 깨끗함이 느껴졌으며, 또한 공장 내에 사진과



▲ 태신인팩(주) 청원공장 전경

그림액자, 나무 장식 등이 비치돼 있어 아늑함까지 물신 풍겨냈다.

“기업의 최고 자산은 직원 즉 사람이고, 기업의 성장은 곧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개념 작업환경 조성으로 CLEAN PRINTING(깨끗한 인쇄), CLEAN COMPANY(깨끗한 회사)를 만들거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서명현 사장은 임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다.

“공장내 작은 소품이나 장식으로 인해 작업장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라는 서사장은 직원들의 손을 핸드프린팅하여 공장내에 걸어 두었다.

“인쇄 공정상 손의 부상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직원들 자신이 매일 자신들의 손을 보며 손에 대한 안전을 인식시키고자 한 것입니

다. 더욱이 직원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고, 회사 또한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와 세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핸드프린팅은 손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라는 서사장은 작업장을 “공장”이 아닌 “스튜디오(STUDIO)”라고 부르고 있다.

이 외에 1,250평(4,000㎡)의 부지를 직원들의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인당 10평씩 무상으로 분양해 채소, 과일 등 작물을 심고 가꾸도록 하여 직원들의 여가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 서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배려이다.

### 최고의 시설로 최상의 제품생산

태신인팩은 최고의 품질로 최상의 고객 만족을 시키고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인쇄기계는

고가로 중소기업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시키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태신인팩의 서사장은 젊은 경영인답게 열린 경영으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태신인팩의 설비 보유 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태신인쇄는 지난 2001년 5월 11일 MAN Roland(Korea)社의 최신 인쇄기 R705LTTLV 도입하고 가동식을 가졌다.

R705LTTLV는 고급화장품 포장박스 분야에 매우 특화되어 있어 고품질의 코팅, UV 인쇄, UV 코팅 등의 고품질인쇄를 짧은 시간내에 처리 가능하며 동일한 인쇄색상이 유지되는 반복작업의 요구에 부응에 우수한 품질의 인쇄기로 환경에 유해한 기존의 공정을 환경친화적인 공정으로

개선시켰다.

이외 태신인쇄는 방습기 2대, 옵셋 인쇄기 7대, 실크 인쇄기 2대, 라미네이팅기 2대, 코팅기 4대, 금박인쇄기 2대, 돔송기 5대, 접착기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Advanced PECOM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인쇄기는 Prepress 장비로부터 잉크데이터를 온라인을 받아 작업 준비 시간의 단축, 인쇄 소모품의 감소 및 매우 정확한 잉크 값을 가지고 인쇄를 수행하며, Job Pilot는 무한한 숫자의 작업을 한 사람의 작업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서사장은 "기업은 이윤이 생기면 그 이윤을 재투자 해 내실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당장 눈앞의 이익에 얽



▲ (주)태신인팩 임직원의 손을 핸드프린팅한 "장인의 손" 제막식



▲ 최신 인쇄기 MAN Roland R705LTTL도입 및 오픈하우스 기념촬영

매여서는 안됩니다. 시야를 넓혀 미래를 보고 그에 맞도록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준비라 함은 설비 도입이나 기술개발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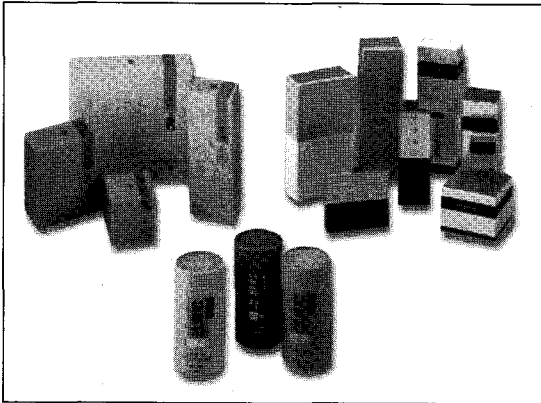
태신인팩은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로 자동화 시스템 다양한 인쇄기술을 개발했다.

착향 인쇄기술(Scent Stripe Printing)은 기존 방법과는 달리 특별한 방법으로 향료를 캡슐 가공하여 다층으로 인쇄해 캡슐이 터질 때마다 그 제품의 향을 발산하게 하여 인쇄물에 향을 담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만 의존해 왔던 터라 이를 위해 2년여 전부터 개발에 착수, 종이를 인쇄할 때 일정 부위에 향기를 담은 캡슐형태의 잉크를 도포하고 접착하면 1년이상

향기가 지속될 뿐 아니라 접착 부위를 누를 때 마다 향 잉크를 담은 캡슐이 터지면서 향기가 발산된다.

태신멀티BOX(Multi-box)는 한 장의 종이상(上)·하(下) 일체형의 BOX를 제작할 수 있어 제품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제작기일이 적게 걸려 납기기간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BOX와 비교시 여닫기 편리하고 윗면 덮개 내면(內面)에 겹포장면과는 다른 제품의 광고면 또는 제품 설명에 관한 안내면을 넣을 수 있어 간단하게 뚜껑을 여는 동시에 광고효과 또는 제품의 진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태신인팩의 개발한 홀로그램(Hologram) 전사(Transcription) 인쇄는 포장재의 고급스럽고 환상적인 표현을 위해 값비싼 홀로그램 필름을 사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Calendaring 작업시 홀로



▲ (주)태신인팩의 인쇄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

그럼 효과를 낼 수 있는 특수전사(轉寫)인쇄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므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환경친화적인 기법이다.

신개념 우편물 포장재 POSTPACK은 소포의 규격을 표준화함으로써 우편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포장 박스이며, 이는 파렛트 혼합 적재효율을 극대화한 6종류의 규격을 도출하여 포장, 하역, 보관, 수송, 정보 등을 고려해 상품의 포장 품질 유지와 포장비 절감, 포장시간 낭비를 제거할 수 있게 고안한 포장박스다.

그 외에 발광잉크를 이용한 인쇄기법과 세라믹을 함유한 항균코팅 포장재(식품, 녹차 등의 용기)등을 개발했다.

### ‘미래를 향한 문’으로

지금까지는 벽돌을 쌓고 칠을 하는 다듬질에 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세계로 나아가 좀더 넓고 다양한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기 위해 힘써야 할 때인 것이다. 때문에 4월 태신인팩(주)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약의 발

판을 마련했다.

서사장은 “지금까지는 최상의 설비 사용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과 작업 환경은 물론 모든 인쇄공정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환경 첨단화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는 품질 향상, 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 고객우선주의를 기본으로 첨단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Taeshin inpack’은 ‘Taeshin’과 ‘inpack’의 결합으로서 International, Innovative, Information, Packaging의 의미를 갖는 합성어인 인팩(Inpack)을 통해 Global Marketing을 전개해 나갈 미래지향적 경영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태신인팩의 로고는 게이트(gate)를 나타낸 것으로 태신인팩을 통해 인쇄업계의 미래로 향한 문을 상징한 것이다.

인터뷰 내내 밝은 웃음으로 본 기사를 편안하게 대해 주었던 서사장은 “휴머니티를 최고로 하는 태신인팩은 최고의 품질 생산에 주력해 고객 만족에 있습니다”라며 “기업의 존재 가치는 고객 사랑에 있으며 잠재적 고객불만까지 무결점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최대의 고객감동을 창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ISO14001 획득과 함께 환경과 사람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며 항상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태신인팩을 통해 국내 인쇄분야는 물론 세계로 향한 선진인쇄 분야의 미래가 밝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이끌어 나갈 서 사장의 투자 경영, 열린 경영과 태신인팩의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본다. ☺

권해진 기자